

발 간 사

2010년은 6·25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여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국가발전을 힘으로 뒷받침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과 안보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 기습공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불법적인 무력도발을 연이어 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과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잠재적 갈등 또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국방비전으로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하였고, 무기조달·획득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합동성·효율성 강화를 위해 장교교육체계를 개선하였고, 신병 교육기간을 연장하는 등 교육훈련체계도 보완하였습니다. 국방경제가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방산수출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국방규제도 개혁하였습니다.

전략환경을 고려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에 합의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굳건한 동맹의지를 과시하는 한편 동맹을 미래지향적인 전략동맹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전략동맹 2015」, 「국방협력지침」, 「한미 전략기획지침」 등에 관해 중요한 합의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레바논 동명부대, 아덴만 청해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등 해외파병부대들은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통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변혁이 필요합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우리 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무엇보다 먼저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도발을 자행한다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겠습니다. 국방 전반에 잔존해 있는 행정주의적 요소, 관료적인 풍토, 매너리즘을 과감하게 도려내어 오직 전투행동과 작전결과로 평가받는 기풍을 조성하고, 고도의 실전능력을 구비한 '전투형 부대'와 전투의지가 충만하고 작전기강이 확립된 '전사 중의 전사'를 육성하겠습니다.

군의 방위역량을 한 차원 격상시켜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하고 합동성이 실전적으로 발휘되는 선진화된 전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동맹 2015」의 틀 속에서 한미간 주요 현안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맹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국격 향상과 국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외교 활동을 활성화하고 평화유지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기 위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에도 앞장 설 것입니다.

이번 「2010 국방백서」에는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정책의 방향, 추진현황과 계획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주요 국방현안에 관해 소상하게 기술하였으며, 6·25전쟁 회고,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국방관련 자료들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2010 국방백서」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승리를 위한 변혁'을 통해 '지금 당장 싸워 이기는 강군'을 건설하는데 각고정려(刻苦精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주관진

국방부장관 김관진